

현대택배, 현대중공업과 녹색물류 이룬다

공동순회배송으로 14,000대 차량 15대로 줄여



2009 연중 캠페인
"Go! Green Logistics"

후원업체

SEBANG

농협물류

한진

대한통운

현대택배(주)

후원기관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녹색물류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택배가 손을 잡았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물류업무를 모두 현대택배가 맡으면서 차량 운행 횟수를 줄이고 CO₂배출량도 감소시켰다.

현대택배 전담체제로 공동순회배송 시작

울산 현대중공업은 배 한척을 1주일 내 생산하기 위해 몇몇 조선공정을 수백 개의 납품업체에게 아웃소싱하고 있다. 현대택배가 물류업무를 전담하기 전에는 각 벤더가 납품이나 자재운송을 해왔다. 그 결과 14,000여대가 현대중공업을 드나들게 됐고 효율적인 물류처리에 장애가 된 것은 물론, 사내 교통 혼잡까지 일어났다.

2003년, 현대중공업은 계열사인 현대택배를 물류부문에 투입시켰다. 현대택배의 차량이 납품처를 순회하여 물자를 일괄적으로 픽업해 오는 공동순회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위

한 현대택배의 전담인력이 투입됐으며 시스템 개발과 컨설팅이 동시에 이뤄졌다. 전담 차량도 4.5t, 2.5t 15대가 배치됐다. 이 차량들이 오전에 납품업체들을 순회하며 자재를 픽업하고 오후에 현대중공업의 15개 메인 창고로 운송했다. 이로써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차량 운행 횟수를 줄여 CO₂의 배출량도 저감할 수 있었다. 납품업체의 배송이 필요 없어지면서 중소기업인 납품업체들의 물류비 부담도 줄게 됐다.

크로스도킹 뺀 공동수배송 모델

현대중공업 물류의 특징은 적시적소 배송에 있다. 사내물류(생산물류)는 특히 자재배송을 공정 진행 상황을 고려한 자재배송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타 이밍이다. 현대택배의 공동순회배송 시스템은 기존의 크로스도킹(Cross Docking, 여러 곳에서 집하하여 한 곳으로 취합한 후에 다시 배송을 하는 것)를 차용하지 않았다. 공동물류부문에서도 공동수배송

에 주력하면서도 핵심인 크로스도킹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때문에 허브센터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생략돼 전체적으로 소요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다. 이것은 울산이라는 비교적 좁은 공간 내에서 공동수배송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아웃소싱을 한 기업에서는 안전 재고율을 현격하게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향후 현대중공업과 현대택배는 공동순회배송 시스템을 부산, 양산, 대구, 의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대택배는 서울시내에서 운용되는 6년 이상 2.5톤 트럭에 매년 저감장치를 설치했고 400여대의 디젤 지게차도 전기식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2010년에 도입되는 녹색물류인증제도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